

말 흥내내는 도깨비

채연우





옛날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겨울날, 밭에 나갔다가 들어온 농부가

“어휴 추워, 날씨가 무척 춥군.”

하면서 방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휴 추워, 날씨가 무척 춥군”

하면서 방 안에서 누군가 농부의 말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주 똑같이 말하니 메아리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목소리는 달랐어요. 누군가가 농부의 흉내를 내는 것이었어요.





두리번거리던 농부는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허허, 이상한 일이구나, 누가 나를 찾아왔나?”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허허, 이상한 일이구나, 누가 나를 찾아왔나?”

하고 또다시 그 말을 똑같이 흉내 내는 것이었어요.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 소리는 천장에서 ⁴들려
왔어요.

“천장에 도깨비가 들었나 봐”

농부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자

“천장에 도깨비가 들었나 봐”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깨비가 들었다고 다시 말하는 걸 보니, 정말 도깨비가 맞
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없이 혼자 살고 있었던 농부는 더욱 무서워졌어요.

“아이고 무서워, 방안에 혼자 있지를 못하겠구나.”

농부는 참 고민이지 뭐예요.
나가서 살 수도 없고 도깨비를 내쫓을 수도 없었어요.
이런 농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김없이 천장에서는

“아이고 무서워, 방안에 혼자 있지를 못하겠구나.”
라는 말이 들려왔지요.





농부는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로구나!’

농부는 그때부터 입을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삼 일째 되던 날, 오히려 심심해진 도깨비가 입이 근질거렸는지 농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아저씨, 아저씨!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도깨비의 말을 듣고 농부는 좋은 꾀를 생각해 냈어요.

이제부터는 거꾸로 도깨비의 말을 똑같이 흉내 내는 거예요.

“아저씨,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저씨!”
도깨비가 말했어요.

“아저씨,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저씨!”
농부는 계속 도깨비의 말을 흉내 냈어요.

그러자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던 도깨비는
못 참겠는지 펑! 하고 방안에 나타났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농부는 껄껄 웃으며 그 도깨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